

중국인의 성격형성과 문학(요약)

최용철(고려대 교수)

프롤로그

최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급격한 관심의 부상

1972년 중미대화, 일본과 수교, 한국에서는 중국어문학과 신설

중공과 자유중국, 중국대륙과 대만, 우리에게 다가온 중국

1983년 민항기사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급격한 한중교류,

한국방문 중국관광객 600만, 향후 본격적인 해외관광시대에는?

중국거주 한국인 100만, (중국조선족, 주요도시의 한국인 활약)

2012년 동아시아 긴장, 동아시아 비교문화회의

중국과 중국인을 알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

1. 중국문화의 특징적 성격

「중국문화의 키워드」, 중국문명의 다양한 특질

「陰陽사상」, 오행과 결합하여 「음양오행사상」, 태극과 팔괘

五行(金木水火土)의 다양한 활용, 태극기의 상징

「人文정신」, 삼대(夏殷周)의 변화, 孔子의 인문정신, 문무겸비와 문질彬彬

尙武정신과 文治주의, 華夷의 구분, 中華의 쇠퇴와 해동의 소중화

「道德의식」, 유가와 도가사상, 왕도와 패도정치, 공자 “朝聞道夕死可矣!”

재주와 덕성의 겸비, “女子無才便是德!”

「中和추구」, 중용과 화합의 중시, 베이징올림픽 활자 「和」

「和而不同」의 세계추구, 협상에서의 「求同存異」

2. 근현대시기 민족성 비판

중국 근현대역사의 성쇠변화

원나라 때는 유라시아 대륙의 상당부분을 장악

명초, 정화(鄭和)대항해(『西洋記』), 동남아, 인도양, 아라비아, 아프리카 연안

청전기, 강희-건륭(康乾盛世),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 18세기 평화공존시대

아편전쟁(1840)홍콩, 영불연합군(1860)원명원, 청일전쟁(1895), 대만할양

중화민국(1912),五四신문화 운동(1919), 만주국건국(1932), 중일전쟁(1937),

신중국 성립(1949), 모택동 시대의 30년, 낙후와 폐쇄, 실패한 사회주의

개혁개방(1978), 등소평시대, 대국굴기(大國崛起)대장정 (50년간 韜光養晦)
홍콩반환(1997), 마카오반환(1999), 올림픽(2008),
중일긴장(2012), 釣魚島(센카쿠도)문제로 중일긴장 시작
시진핑(習近平)주석(2013) “中國夢(Chian Dream), “新常態(New Normal)”시대,
“一帶一路”(신 실크로드)

지난 30년간 중국을 가까이서 지켜보아 온 우리로서는 격세지감
만만디의 나라, 게으름의 나라, 짝퉁의 나라, 깨끗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던 중
국의 변신, 중국 유커(遊客)의 쇄도, 한국의 미래와 한중관계를 위해 중국을 알아야!

「자기부정의 민족성 비판」

근대 중국지식인의 중국민족성에 대한 고민

대표적인 예: 중국의 대문호 노신과 중국 신문화운동의 기수였던 호적
<魯迅>, 센다이 의학전문학교에 유학중, 기록영화 관람

“병든 사람 고치는 것보다 민족의 병든 정신을 개조하는 것이 시급하다”

『狂人日記』는 피해망상증에 걸린 어떤 광인의 일기형태로 지어진 작품

“중국은 지난 4천년동안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사회였다”

『阿Q正傳』는 떠돌이인물 아큐의 전형적인 노예근성을 묘사한 작품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정신승리법」으로 자존심만 세우는 무지와 허위

<胡適>, 미국유학 때 백화문학운동 제창, 신문화운동의 기수

과학(사이언스)과 민주(데모크라시)로 전통의 인습을 타파, 인간중심의 문학 강조

『差不多先生傳』

“여러분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분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구든지 다 알고 곳곳에 이름이 나신 분이데 바로 성은 差요, 이름은 不多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누군든지 한번쯤 이분을 보셨거나 누군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중국인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중국민족성의 커다란 문제로 인식

손문(孫文): 우물쭈물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성격, 수구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성격, 주인의식의 결핍,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성격, 진보적이지 못한 성격,

양계초(梁啓超):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생각의 결핍, 노예근성과 이기적인 사고, 우매하고 비겁한 성격, 무단적이고 허장성세의 성격

백양(柏楊)의 『추악한 중국인』

더러움(髒), 어지러움(亂), 시끄러움(吵), 내부투쟁(窩裡鬪),

단결 못함(不能團結), 잘못을 인정않는 태도(死不認錯)

전통미덕으로서의 중국인 특질

「애국적 정서」, 「지조」, 「근검절약」, 「교육과 학업중시」, 「예의와 겸손」, 「성실과 신의」, 「선행」, 「스승과 노인존중」

보편적인 중국인 성격

「만만디성격」, 「금전만능」, 「체면중시」, 「화합중시」, 「관계중시」, 「현실중시」, 「신의중시」, 「공정사고」, 「음식남녀」

3. 문학의 발전과 사대기서

漢字문화의 형성과 漢族의 문학 발전

삼국에서 남북조, 수당 과거제도, 인재선발과 시문의 발달, 시사곡, 희곡과 소설
사대기서: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三國志演義』, 삼국의 역사를 부연한 나관중의 소설, 배송지(裴松之)의 주석 활용
“모든 역사는 오늘 이 순간의 역사”, 위진, 남북조(남조), 유비(劉備)의 촉한 중시
당의 민간의 연예, 宋의 민간설창, 원의 장편소설, 명청대의 평점

남송의 中華와 夷狄의 개념, 華夷의 구분이 강화, 옹유평조(擁劉貶曹)의 주제
『水滸傳』, 북송 휘종연간의 산동도적 宋江의 이야기, 강서의 용호산의 북마전

천하 108명 영웅, 36명의 천강성과 72명의 지살성,

양산박의 취의청에서 체천행도, 송강의 충의당

官逼民反, 逼上梁山, 송강의 귀순(招安), 以夷制夷로 영웅들의 최후

『西遊記』, 서천취경의 삼장법사 일행의 여행기, 유불도 삼교사상

원숭이(손오공), 돼지(저팔계)의 동물 의인화, 신선과 마귀의 싸움, 신마소설
당태종의 지옥여행, 강류화상 이야기, 佛法의 추구, 自我를 찾아가는 구법여행
신라고승 혜륜과 혜초의 인도여행,

신라왕자 김교각의 구화산 화성사의 등신불, 지장보살

박통사언해의 서유고사, 경천사지,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서유고사 부조

『金瓶梅』, 명대 문인의 창작소설, 「무송살수」고사를 부연하여 새로운 작품 구성

청하현 서문경과 처첩 여섯 이야기, 사회현실을 묘사한 「세정소설」의 대표

張竹坡 「酒色財氣」분석, 졸부의 방탕한 일생, 돈과 여자와 권력 청탁의 사업경영

4. 쌍진비판과 홍루몽 중시

「사대기서」의 영향과 동아시아 전파, 「조선에서의 삼국지와 수호전」

유교사회에서는 소설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과 중간 문인층의 상업적 소설편찬

조선의 중국소설 전파, 가정(嘉靖)판 『삼국지통속연의』의 금속활자 간행

尹春年(교서관 제조)의 『전등신화구해』와 『금오신화』 간행, 『삼국지』간행 가능성
宣祖, “장비가 대갈일성하자 백만대군이 물러갔다”,

奇大升, “최근 나온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속의 황당한 구절”,

“『전등신화』와 『삼국지연의』, 교서관에서 간행했으니 금지해야 마땅”

李植, “『수호전』을 지은이는 삼대가 병어리가 되었다”

“허균과 박엽 등이 그 책을 좋아하였다”

“허균은 『홍길동전』을 지어 『수호전』에 견주어, 결국 반란죄로 주살되었다”
李頤命, “세상에 전하기를 『삼국지연의』를 지은이는 병어리가 되어 죽었다”
英祖나 思悼世子 등은 소설을 좋아했지만, 正祖는 금지하고 문체반정을 주도

劉再復의 『쌍전비판』

“어려서 『수호전』을 읽지 말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말라”

<삼국지연의>, 권모술수, 인간미 상실하고 조화를 잃은 황폐한 세상을 연출
曹操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교활한 술수는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는 비열함
呂伯奢 일가몰살, 徐州군민의 도살의 잔인한 행위

“내가 천하를 배신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한다”

劉備, 자기기만적인 위장술의 대가, 표면적 인의, 천하를 도모하기 위한 권모술수
淸나라 만주족의 『삼국지』 학습과 활용, 만주어 번역, 조선의 『삼역총해』

<수호전>,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살인과 폭력, 반란에 대한 조장

이규의 무분별한 민간인 살해, 무송의 원앙루 몰살사건

劉再復 “이 두 작품은 비록 문학적 성취가 높은 성공한 명작으로서 오랫동안 중
국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문화비평적으로 볼 때 특히 비인간적이
고 비도덕적인 내용의 악영향 또한 지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중국인의 심성에 끼친 해독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
지 않으면 안된다.”

<紅樓夢>이란 어떤 책인가

조선 창덕궁 낙선재에 전하는 120권짜리 언해본 『홍루몽』

『홍루몽』 작자, 만주귀족 출신 조설근(曹雪芹)

『석두기』80회 필사본, 『홍루몽』120회 간행본, 삽화와 평점

여와보천(女媧補天), 대황산 무계애, 인간세상에 환생, 가보옥의 通靈寶玉

돌과 나무(목석의 인연), 임대옥은 태허환경의 강주초(絳珠草)

옥과 쇠(금옥의 인연), 설보차는 어려서 얻은 금목걸이(金鎖)를 갖고 있음

전생에서 돌, 이승에서 옥, 가보옥은 가문의 계승자, 大觀園의 청일점,

남들이 꽃구경을 하면서 즐기는 이 봄날에 한껏 임대옥의 슬픈 노래(葬花詞)

“꽃잎묻는 나를보고 남들은 비웃지만, 훗날내가 죽고나면 묻어줄이 누구인가?

봄날이 지나가고 꽃잎 점점 떨어지면, 그게 바로 홍안청춘 늙어가는 그때라네!

하루아침 봄은지고 홍안청춘 늙어가면, 꽃잎지고 사람가니 둘다 서로 알길없네!”

『홍루몽』은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던 가문의 몰락과정을 그림, 왕희봉(王熙鳳)

“고목나무 무너지면 원숭이들도 떠나간다”

왕희봉계략-병든 보옥 혼미중 보차와 혼례, 그 순간 대옥은 절명(영화『스잔나』)

지상낙원 대관원에 닦친 몰락의 그림자, 보옥의 과거시험과 출가, 대황산 무계애

“청춘과 젊음의 소설에 대한 아쉬움”, “순수함을 잃은 속세의 성인에게 경중”

“곧 의역하면 ‘봄날은 간다’로 말할 수도 있다” (2015-4, 研紅軒,)

[참고]

<홍루몽은 어떻게 세계 명작이 되었는가>(요약)

1. 홍루몽, 왜 중국인에게 어필하였는가?

중국에는 꿈 이야기의 전통이 있다

「침중기」와 「남가태수전」의 일장춘몽 이야기는 모든 중국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애뜻한 사랑이야기의 전통이 있다

앵앵의 『서상기』와 두려랑의 『모란정』 이야기를 이어 가련한 임대옥에 주목했다

신화에서 역사까지, 진실과 허구를 오가는 서사의 전통이 있다

여와신화에서 유래된 가보옥 탄생과 더없이 찡찡한 대관원의 소저들의 사연이다.

2. 홍루몽, 언제 어디서 누구의 이야기인가?

아주 오랜 옛날 여와보천의 시대에 하늘을 메우고 남은 돌 하나의 환생담이다.

다시 역겁의 세월이 흐른 뒤에 공공도인이 대항산 무계애에서 베낀 돌이야기다.

어디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남경과 소주, 양주에서 시작하여 북경에서 진행되는

가보옥과 임대옥의 애뜻한 사랑 및 설보차와의 혼인에 얽힌 비극적 애정담이다

사태군(가모)와 왕부인과 왕희봉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경영을 그린 흥망성쇠사다

꿈과 사랑을 잃고 가문의 몰락을 체험하고 봉건사회에 절망한 뼈아픈 참회록이다

3. 홍루몽,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조설근이 지었다. 백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던 만주귀족의 말세에 태어난 천재다

조씨 가문의 흥성은 요양땅에서 만주족 청나라의 시작과 함께한다.

조설근의 증조모는 강희황제의 유모였으며 증조이래 삼대가 남경의 귀족이었다.

조설근은 북경 서산아래 궁핍하게 살면서 석두기(홍루몽)를 창작했다.

필사본 석두기는 황실후손과 만주 귀족사이에 전파되었다.

4. 홍루몽, 어떤 이들이 완결하여 간행했는가?

전80회만 남아전하던 필사본에 고악이 후반 40회를 보충 완성하였다

정위원이 마침내 120회를 목활자로 간행하고 삽화도 만들어 넣었다

왕희렴과 장신지, 요섭 등이 다양한 평점을 달고 분석한 책을 만들었다

홍루몽을 주제로 한 시사와 희곡, 회화와 조각 등이 널리 성행하였다

경학에 빚대어 문인사이에 흥학의 불이 붙어 흥미로운 논쟁이 일어났다

5. 홍루몽, 언제 어떻게 이 책을 중국 최고의 정전으로 만들었는가?

정말 최고의 석학, 왕국유가 홍루몽평론을 써서 우주의 대저술이라고 했다

북경대학 총장, 채원배가 석두기색을 써서 청조의 정치소설이라고 했다

신문화운동의 기수, 호적이 홍루몽고증을 써서 작가와 판본을 밝혀냈다.

고힐강과 유평백과 주여창 등으로 이어져 홍루몽을 중국최고의 정전(正典)이 되었다

6. 홍루몽, 누가 온 세상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였는가?

러시아정교회 전도사가 북경어를 배우기 위해 석두기 필사본을 구입하여 가져갔다

홍콩사는 영국인이 표준어(Mandarin Chinese)를 배우기 위해 번역을 시작했다

조선왕실은 역관을 시켜 원문과 발음을 단 대역본을 120책으로 만들어 낙선재에 두었다

독일의 번역가가 번역한 홍루몽 축약본은 유럽 전역의 각국 언어로 재 번역되었다.

현대 중국에서 양헌익과 부인(그레이디스)의 영어 완역본이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호크스와 제자(민포드)의 영어 완역본이 나왔다.

한국 고려대 최용철과 후배인 한림대 고민희의 우리말 완역본(나남)이 나왔다.